

# 겨울배추 공급 과잉에 바닥없는 가격 추락

### 따뜻한 겨울 날씨에 배추 생산량 '평중'...도매가격 절반으로 '뚝' 해남·진도 등 전남 피해 우려에 정부 수급정책·소비활성화 나서

따뜻한 겨울 탓에 대표적 월동채소인 배추의 생산은 늘었으나 소비는 부진하면서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약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과 진도 등 전남지역 농업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화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수급정책과 소비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이 발표한 '3월 농업관측월보'에 따르면 이달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3757ha로 조사됐으나, 따뜻한 날씨에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오히려 34만7000t으로 20.8%가 증가했다. 지난해 극심한 한파가 몰아쳤던 것과 달리

해는 한파도 없었고, 강수량도 적절해 생육이 좋았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도 줄면서 가격 폭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겨울배추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2790원으로, 평년 659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무려 57.7%나 떨어졌다. 지난해 배추 가격인 8150원에 비해서는 65.8%가 감소하는 등 가격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배추의 경우 주산지가 해남과 진도 등 전남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지역 겨울배추 출하 진행률은 지난달말

80% 내외로 평년 대비 느린 수준으로 조사됐다. 진도의 경우 출하면적이 684ha로 아직 385ha가 출하를 하지 못해 출하율이 6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겨울철 따뜻한 날씨에 배추가 꽃줄기를 내는 '추대' 현상도 나타나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출하가 늦어질수록 추대 현상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면 가격이나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겨울배추 가격이 또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악화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협 등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배추 7만1000t을 시장 격리하고, aT도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aT는 배추를 비롯한 월동 무와 대파 등

가격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월동채소류에 대한 효능과 가격, 선별·순질·보관·레시피 등 소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월동배추를 포함한 82품목 134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소매가격을 매일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알리기로 했다.

이번 시장격리 등 가격안정 대책 시행으로 이달 이후 배추 값이 약세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aT 측의 설명이다.

aT 관계자는 "월동채소류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평년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 새로운 이슈 부재...부진한 시장 지속 국내 첫 유가증권·코스닥 동반 순매도 미세먼지 등 개별 종목 순환 흐름 대응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중국 A주 편입비중이 5%에서 20%로 확대가 확정되면서 연초 글로벌 유행성 유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한국비중축소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지난주 2.64% 하락해 2137.4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28일 하락폭을 4일 크게 회복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영향이 낮은 상황에서 미세먼지관련주, 중국소비재, 제약바이오 등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며 0.65% 상승해 735.97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내증시 하락폭을 확대시켰는데 중국상해 종합지수는 8일에만 4.40% 하락하며 2969.86포인트로 급락했다.

중국증시 급락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상해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과장판 설립 및 시행이 가속화되고 자본시장 감세 조치 기대감으로 증권업종이 연초대비 52% 상승함에 따라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둘째, 2월 중국 수출입증거를 및 무역수지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하며 미국의 과세부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주 북·미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좋은 협상이 아니라면 사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우려감을 확대시켰다.

마지막으로 종신증권(3/7)과 화태증권(3/8)에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이유로 '매도'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중국 3대 언론사에 중국 증감회가 중국증시 단기과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정부정책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중국증시 단기조정은 한편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3월말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국기업의 2018년 실적 발표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단기조정가능성은 있었지만 3월 13-15일께 전년대 3차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자유제 및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강제 기술이전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강한 외상투자법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저점을 다지면서 3분기까지는 점진적인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도 북·미회담과 미·중 무역협상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수급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가격하락과 재고부담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코스피지수는 2100-2150선 사이의 중립수준의 흐름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수중심의 접근보다는 종목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주에 언급했듯이 상승모멘텀이 존재한 개별종목 및 경기소비재,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관심이 급증한 미세먼지관련주, 중국정부 경기부양 및 중국관광객 기대로 중국 관련 소비주, 저평가되어 있는 신규상장주의 순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2019 대한민국 식품대전'

### 참가 기업 모집합니다

#### aT, 10월 23일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0월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참가할 중소식품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1회째 열리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중소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기회 제공과 식품트렌드 공유, 기업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참가신청은 7월 31일까지 홈페이지(www.koreafoodshow.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중소식품기업을 비롯해 외식, 푸드테크, 식품스타트업 등 다양한 식품산업 관련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산농산물 사용비중 등을 평가해 200여개 참가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식품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우선 선발될 수 있다.

참가기업은 박람회 기간 제품 전시·판매가 가능한 개별부스를 운영할 수 있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바이어와 1대1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참가기업의 제품정보를 담은 디렉토리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정보를 국내외 바이어와 관련기관, 협회 등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열린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에는 170여개 국내 중소식품기업이 개별부스를 운영했으며, 국내 바이어 123명과 상담 445건(196억원 상당), 해외바이어 150명과 상담 1224건(2억9000만달러 상당) 등 성과를 거뒀다.

/박기용 기자 pboxer@



"다양한 산지 토마토 맛보세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토마토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토마토 출하시기를 맞아 '토마토 산지 모음전'을 열고 송이 토마토와 노랑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맛과 색을 지닌 토마토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 제주시장 '상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7일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 10kg 짜리 1만포를 제주도화인마트협동조합에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전남도 지원을 받아 풍광수토가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구매고객에게 샘플쌀 500g을 추가로 증정, 제주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 단일 품종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스티커 제작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면적인 변화를 준 풍광수토는 2017년부터 11개 RPC가 공동으로 참여해 수도권 판매장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2017년 6억원, 2018년 4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올해는 100억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지난 1월 풍광수토가 전문가가 선정한 2018년 결산 베스트 신상품 품목부문에 대상에 선정되고 지난해 흡수평방송을 통해 구매 고객들로부터 반응도 좋다"며 "올해는 풍광수토가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제주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